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의 혁명사상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58호 【루게 제25201호】 주제 105 (2016)년 2월 27일 (토요일)

위대한 김정은 동지
따라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앞으로!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새로 개발한 반땅크유도무기시험사격을 지도하시였다

은 나라가 력사적인 당 제7차대회를 승리자의 대회, 영광의 대회로 빛내이고 올해를 주체혁명 위업수행의 일대 도약기로 만들데 대한 당중앙의 전투적호소에 일심적 피성으로 화답하며 70일전투철야진군의 힘찬 발걸음을 내디디고있는 격동적인 시기에 우리의 영웅적군수로동계급은 당의 국방과학, 군수공업정책을 높이 받들고 나라의 방위력을 강화하는데서 커다란 의의를 가지는 실험반땅크유도무기체계를 개발 완성하는 빛나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우리 당의 무장장비정밀화, 경량화방향을 높이 받들고 최첨단과정을



목표를 쏘아 맞히는것처럼 대단히 정확하다고, 장감관통능력과 파괴력이 놀랄만 한데 아무리 특수복합장갑을 뒤집어쓰고 기동력과 타격력에 대하여 발전되었다고 자랑할데는 적땅크, 장갑차들도 우리의 반땅크유도무기앞에서는 실은 호박에 불과하다고 대만족을 표시하시며 호랑하게 웃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이 반땅크로켓에는 우리 당의 유격전에 관한 군사전략사상이 절대성되어있고 자신께서 주장하는 무장장비정밀화, 경량화사상이 가장 완벽하게 반영되어있다고, 경량화가 실현되어 적은 인원이 휴대하고 다니

힘있게 벌려온 우리의 미더운 국방과학자들과 군수로동계급은 고심어린 연구사업끝에 드디어 적들의 수적, 기술적우세를 휴지장으로 만들어버릴수 있는 또 하나의 우리 식 주체무기완성을 알리는 최중시험사격을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모시고 진행하게 되였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새로 개발한 반땅크

유도무기시험사격을 현지에서 지도하시였다.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인 조선인민군 차수 황병서동지, 조선인민군 총참모장인 육군대장 리명수동지, 인민무력부 부부장인 육군상장 윤동현동지, 조선인민군 총정치국 조직부국장인 육군 중장 조남진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들인 조용원동지, 홍영철동지, 김창광동지, 김정식동지가 동행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현지에서 군수공장의 일군들이 맞이하였다.

시험사격은 휴대용레이자유도반땅크로켓의 비행조종성 및 명중성과 로켓의 집초 및 열압전투부의 위력을 판정하는데 목적을 두고 진행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이 무기체계개발연구사업을 지도해오시며 자신께서 직접 제시하신 사거리연장문제와 집초전투부의 장감관통능력을 높이고 열압전투부의 위력을 높일데 대한 과업관철을 해당 국방과학연구부문과 공장에서 어떤 방법으로 집행

하였는가를 구체적으로 료해하시고 시험사격을 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사격 명령을 내리시자 시뮬건 불꽃기들이 목표들을 향하여 연방 날아갔으며 목표들이 산산이 부서져나갔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정말 놀만 한 사격이라고 하시면서 휴대용 레이자유도반땅크로켓으로는 우리의 군수로동계급이 만들어낸 이 로켓이 사거리가 세계적으로 제일 길다고, 명중성을 보아도 마치 저격수보총으로

므로 적의 표적으로 되지 않을뿐만 아니라 임의의 장소에서 적들을 기습 타격할수 있으며 정밀성과 놀랄만한 위력을 가지고있는것으로 하여 이 무기는 나무랄데 없는 우리 나라 현실에 알맞는 주체무기이라고, 이 하나의 주체무기만 놓고보아도 우리 당의 무장장비정밀화, 경량화방향이 얼마나 정당한가 하는것을 알수 있다고 궁지에 넘쳐 말씀하시였다.

2 번 으 로 계 속

